

농어촌공사 양평광주서울지사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

안유신 기자 | 승인 2026.10.02

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안전한 대피 능력 강화 도모



한국농어촌공사 양평광주서울지사 직원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있다. <한국농어촌공사 제공>

한국농어촌공사 양평광주서울지사가 지난 30일 양평소방서 유신후 소방장 외 3명과 함께 2026년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.

1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훈련은 기관 내 화재 발생 때 신속한 대응과 안전한 대피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. 모의 피난훈련, 자위소방대 운영, 심폐소생술과 AED(자동 심장제세동기) 사용법 교육 등이 진행됐다. 이를 통해 재해 발생 시 현장 응급 대처와 보고 체계 확립, 화재 진압을 위한 협조체계를 점검했다.

특히 모의 피난훈련에서는 기관 내 편성된 자체소방대 25명이 지휘반, 진압반과 대피유도반, 구조구급반 등 각자의 임무에 따라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실시했다.

임성재 지사장은 “기관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양평소방서와 보고체계 확립,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”며 “피난로 협소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인 피난로 확보와 완강기 활용 등 다양한 피난법을 적극 도입하겠다”고 밝혔다.

양평=안유신 기자 ays@kihoilbo.co.kr



안유신 기자